



충남人터뷰 - 충청도의회

부여군, 백제유산과 농업의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강용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약력 부여고등학교 졸업,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휴학, 재향군인회 부여군지회 회장, 부여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석신건설 대표이사,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정치입문 계기?

☞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 새마을운동,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자율총연맹 등 단체장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됐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활동기간이 짧다보니 많은 일들은 없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로 연수를 다녀왔던 일이다. 농업여건이 우리나라하고 많은 차이가 났다.

기본적으로 정부방침부터 다르다. 그 나라들은 농업을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다닐 때부터 농업 발전을 위해 교육도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을 전공할 사람들은 얼마간 교육을 받고 아르바이트처럼 농업을 배우며 같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부여는 농업고등학교조차 없다. 농업을 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6% 정도다. 6%는 적은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농업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그나마 귀농귀촌이 많아지긴 했지만, 농사를 짓다 수익이 별로 없으면 이농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는 농업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고 한다. 스위스의 GNP가 5~6만 달러인데, 농가 또한 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20~30ha(200,000~300,000㎡) 정도의 땅에서 농업, 목축업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벼농사만을 대부분 짓고 있는 우리 농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의정활동 앞으로 계획?

☞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농업발전과 환경부분이다. 특히 부여 인구 중 60% 이상이 농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된다. 농업에 관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농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들을 실천해나가고 싶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결국은 농업발전이 우리 도민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본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 높은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환경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이다. 그만큼 환경도 좋아져야 하는데 아직 시·군은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슬래트도 다 철거해야 한다. 슬래트가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나 돼지 배설물로 인한 오염도 상당하다. 주변 천으로 흘러 들어가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부여군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 크게 두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문제이다. 백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고려시대의 유적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제가 많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인프라가 충분치 못하다. 호텔 등 숙소가 부족하고 먹거리 등이 약하다. 또한 부여군은 금강을 끼고 있어 상당히 경치가 좋은 곳이 많은데 관광코스개발도 미흡하다.

두 번째는 굿뜨래 농산물이 1차산업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부여는 금강변이 있어 땅이 비옥하여 '굿뜨래 농산물 8미' 등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6차산업을 장려하고 있고, 농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6차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코스와 농산



물을 연계하는 현안 사업이 필요하다.

△ 부여군의 가장 큰 장점은?

☞ 부여는 수박, 메론이 충남 생산량의 50%가 넘는다. 밤은 공주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 상당히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다만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 도지사에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력을 수입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인구도 많고, 인건비가 하루 5,000원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30,000~40,0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미얀마 사람들은 일을 하러 많이 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4년간 일하고 30년 어치 돈을 버는거다. 지자체에서 검토는 해본다고 했는데 쉽게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

△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은?

☞ 농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FTA로 인해 농산물 단가가 싸지고 소득이 줄다보니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대신 공산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그 이익을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 투자, 유통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정책을 다시 검토해서 자생력을 키우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 충남연구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충남연구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민 행복을 위한 연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려면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원에 모든 전문가를 다 둘 수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력 수급, 또는 협업이 제대로 되어 보다 양질의 연구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충남人터뷰 - 충남도의회

천안이 곧 충남!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체감형 행복 실현할 터~



김 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약력 천안여자고등학교 졸업, 경기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상담학 박사 졸업,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 (현)미래사회연구원 원장,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인성총효위원장,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치 입문 배경은 ?

☞ 처음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주변의 권유를 받게 되었다. 또한 전공이 교육학·상담학이다 보니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점을 등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실현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입문하게 되었다.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의정활동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서 도민들이 좋아졌다는 느낌 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다고 본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참 많다. 근데 아

직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을 많이 한다. 나 역시 현장중심으로 다니고 있다. 실질적으로 토론회장이나 활동적인 공간은 꼭 우리 천안 지역이 아니더라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다.

한번은 척수장애협회 관계자가 나에게 교육을 요청한 적이 있다. 척수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마비가 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사회로 나오게끔 상담 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거다.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어 교육을 한 적이 있고 토론회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맞는 보조기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견들이 나왔고 이를 기초로 해서 조례제안을 했다. 지금은 조례가 통과된 상태다. 내년 1~2월 쯤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센터를 설립하려고 공모사업을 충남도에서 도전해 보려고 한다.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은 ?

☞ 의정활동 전부터 개인적인 관심영역이자 전공분야인 복지분야에 대해 정책 사각지대, 예산 사각지대 등의 문제인식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책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며 이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이루어낸 '현장의 수요-조례(제도나 틀)-현장 적용' 등의 성공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보다 빠르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

☞ 문화적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충남은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충남

거점 문화, 복지 지원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선도적인 사례들은 실상 미흡하다. 도시는 커져가고 있고, 문화공연 등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행이 시급하다.

청소년진흥원, 시각장애인협회, 아동보호센터 등 대부분 현장중심 복지기관들도 천안에 있다. 현장 중심으로 일어나는 곳은 천안이다. 그런데 몇몇 복지기관은 문제점도 있고, 정치인들의 선거도구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

△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천안시는 실제 충남에서는 제1도시이기는 하나 반면 농촌지역도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천안 원도심을 개발한다고 해서 확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색을 잘 살린 발전이어야 한다. 작지만 각각의 기능을 인정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천안도 충남의 축소판이라고 본다. 충남 전체에서 북부권은 산업화, 서해권은 관광 등 하나의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세우듯이 천안 역시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은 똑같다.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그 속에서 우열이 생기고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를 저기처럼~' 이런 식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가꾸고, 작지만 각각의 기능을 잘 하는 도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다.

△ 충남연구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인문·사회과학적인 철학의 바탕 하에 정책들이 입안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연구진들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늘 도민들의 입장, 현장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길 바란다. ◀

